

우물의 이름

고대 근동(Ancient Near East)에서는 우물이 곧 생명이었습니다. 척박한 사막과 거친 광야에 맞서 저마다의 삶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물이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우물은 이를 여실히 증하고 있습니다. 곧 이민족(異民族)과의 전쟁에 있어 우물을 먼저 선취하는 것은 승리를 담보할 수 있는 첩경이 되었고, 설령 전쟁에 참패하여 패주하는 경우라면 어김없이 우물을 메웠는데, 이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다시금 저들 땅으로 귀환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은 정착의 이유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물이 생명을 다하여 마른 때에는 어김없이 새로운 정착지로의 이동을 모색하여야만 했습니다. 이 모두가 척박하고 곤고한 땅에서 우물은 생명의 연원이 되었던 까닭입니다.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증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찢던 우물들을 다시 찢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창 26:18)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찢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창 26:22)

“이삭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찢더라”(창 26:25)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렐 14:03)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많고 많은 우물가운데 필자는 3개의 우물을 주시하면서 이로부터 몇 가지 교훈을 추론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당시 우물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았기에 외지사람들로부터 행여 있을지도 모르는 훼손과 망실에 대비하여 한 두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함께 들어야만 옮길 수 있는 큰 돌로 우물의 아귀를 막아두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창 29:01-03)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취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큰 돌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설령 물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처음 마신 사람은 마지막 사람 또는 가축이 물을 취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시사하는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08:28)

두 번째는 수가(Sychar)의 우물입니다. 본래 수가는 사마리아 도상의 어느 한 동네를 지칭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극한 대립관계에서 서로 상종치도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도상에 이르신 것은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가심에 있어 지름길을 선택하신 때문이었는데, 당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적의(敵意) 때문에 지름길임에도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사마리아 변방을 돌아 갈릴리로 가는 먼 길을 택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굳이 사마리아의 도상을 우회하는 먼 길을 선택하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적의(敵意)는 예수님의 본성에는 부합할 수 없는 우리 사람만의 심사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도상가운데 사마리아 수가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곳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니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 04:07-14)

당시 우물에서 물을 길기 위해서는 그릇이 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우리처럼 공동두레박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마다가 사용할 그릇을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딴 도상에서 허름하고 지쳐 보이는 한 청년이, 그것도 그릇도 지니지 않은 채,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물을 달라 하고 있음에야,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이 같은 어처구니없는 예수님의 처사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실상 우물물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다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곧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가르치시기 위해 이처럼 그에게 다가가신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갈릴리까지의 먼 길이 아닌 지름길을 선택하신 것이라 봅니다.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그릇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영생수를 담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가슴속에 반드시

그릇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영생수를 담을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곧 예수님께 들려진바 되어 하나님의 선물로서 넘치는 영생수를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를 영원히 살릴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고, 또한 이 험난한 세상을 지치는 중에 우리에게 참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의 고백 또한 이와 다르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

“여자가 이르되 메시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요 04:15-39)

세 번째는 다윗의 우물입니다. 본래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이었는데, 당시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이었던 블레셋의 점령 하에 있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아둘람 굴(The Cave of Adullam)에 숨어 지내며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그는 한시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를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쳤는지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도 넉넉히 엿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 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 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 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삼하 23:14-17)

모름지기 고향은 언제나 우리 가슴속에 잊히지 않는 안식처로서 한결같은 마음의 본향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살아있음에 늘 그림기만하고, 때마다 떠올려 볼수록 애틋한 정감이 살아 꿈틀대며, 언제고 찾아가 숨 쉬며 거닐고 싶은 그곳, 바로 고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물을 우리 각자의 사람으로 치환하면 어떤 교훈이 아로새겨질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쁘기 한량없고, 때마다 만나고 보고 싶으며, 그 이름만으로도 누구에게나 자랑할 수 있고, 거친 삶의 질곡에서 편안한 안식처를 선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마치 그토록 가보고 싶었던 다윗의 베들레헴처럼 그리고 그곳의 우물처럼 삶의 이유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필자는 이러한 삶의 이유를 가슴에

간직한 사람이 명분 있는 크리스천으로서 자랑스럽기 그지없는, 곧 우물과 같은 사랑 깃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길으리로다”(사 12:03)

이상의 3개의 우물을 신앙의 눈으로 조명하여 합체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곧 야곱의 우물은 신앙공동체로서 교회를 의미하고 있다고 봅니다. 크리스천 된 우리 서로서로가 신앙적 교통을 통해 저마다의 유익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가운데 이 험악한 세상과 날마다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영적 힘을 배가할 수 있고,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랑을 세상에 널리 전할 수 있는 근원으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말입니다.

또한 수가의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환할 수 있습니다. 곧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이에 그 보혈의 공로를 가슴에 새길 수 있게끔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약속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 말입니다.

나아가 다윗의 우물은 마땅히 우리의 본향으로서 천국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날마다 그러보기에 꿈에 부풀고 기쁘기 한량없으며 우리의 자랑스러운 신앙의 선대들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날마다 가슴이 뛰고 감격스럽기 그지없는 저 천국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말씀과 천국은 이상의 우물들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물과 같은 교회’, ‘우물과 같은 말씀’, ‘우물과 같은 천국’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교회에는 말씀이 충만하여야하고, 말씀

은 저 천국에 그 기치를 두고 있어야하며, 천국은 우리교회와 말씀에
올곧게 담겨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된 말씀과 천국, 말씀이
된 교회와 천국, 그리고 천국이 된 교회와 말씀, 이 모두는 우리가 이
땅위에 거하는 동안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물의 청지기가 이 땅의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
니다. 아니 좋겠다는 것보다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퍼주기를 즐겨하고(말씀)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며(천국) 서로 이야기하
기를 좋아하는(교회) 그런 자랑스러운 청기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마시고 뚜껑을 닫아둔다거나, 자기만 마시기
위하여 남을 괴롭게 한다거나, 자기만 알고 누리기 위해 두레박을 감추어
둔다면 그 청지기의 우물은 반드시 쉬이 바닥을 드러내고 이내 마르게
될 것입니다.

재론의 여지없이 지금 이 같은 우물은 이미 말라버린 상태라고 생각합니
다. 교회의 사명도 말라버리고, 말씀에 기한 빛과 소금도 말라버리고,
우리의 눈물 또한 말라 버린 형편은 두 말할 것도 없다고 보아 저
천국은 눈에서 아련해져 가고만 있을 따름입니다.

세상은 갈급합니다. 항상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기에 항상 물고 뜯고
하는 경쟁에 시달리면서 그렇게 이귀다툼의 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
니다.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쾌락과
명예 그리고 재물에서 생명을 찾고자 합니다. 그것도 당대에 그치지
않고 후대들에게 대물림하고자 안타깝게 서로를 밟고 짓이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세상은 서로 퍼주기를 즐겨하면 도태되기 십상이라고 가르칩니다.

서로 나누기를 좋아하면 모자란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기 일쑤입니다. 서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면 혹시나 하는 의심으로 짐짓 속내를 들여다보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은메달이나 동메달은 사람취급도 안합니다. 오직 금메달을 목에 걸은 사람의 후광에 함께 서고자 그렇게 온 정신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물은 생명을 다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한갓 창고로서 지위, 명예, 재물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귀한 우물의 물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어디에나 그저 달짝지근한 청량음료나 주스나 커피 등과 같은 중독성 있는 마실 것들만 산재해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우리 목회자들이 이 같은 우물의 청지기라면 그 딱한 처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언제고 마실 영생수이기에 이 땅에서 잠시 눈을 돌려 달짝지근한 청량음료만을 구하고 있다면 그 딱한 처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지금은 새로운 우물을 팔 때입니다. 손에 피가 나도록 땀을 흘려주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도 죄가 관영하여 파도파도 물이 솟지 않는다면 우리의 눈물을 쏟아 부어서라도 그 우물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눈물도 메탈라 아무 소용이 없다면 피를 흘려서라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물이 곧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이고 나아가 교회고 말씀이고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의 질문에서 올곧은 해답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어떤 관리가 물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눅 18:18)